

상하 무치악 환자에서 임플란트지지 고정성 보철물에 의한 수복

구병철*, 동진근, 조혜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Branemark 등이 골유착성 임플란트를 개발한 이후로 무치악 보철 분야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술식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보철 수복의 증가에 따라 환자의 심미적 요구와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고려가 치료 술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고정체의 위치, 각도, 직경, 치은연의 위치와 형태 및 연조직의 두께 등의 고려사항이 있으며, 특히 무치악 환자에서 고정성 임플란트 보철물을 수복 할 때에는 심미적 관점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지대주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대주 선택시에는 지대주의 각도, 높이, 직경, 지대주 주위의 연조직과의 조화, 금속의 노출에 대한 처리등 여러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해야한다. 과거 구강위생의 개념을 강조하여 고정체-지대주 계면을 치은연상에 위치시키는 임플란트지지 고정성 보철물이 일반적으로 계획되어 왔으나 점차 증가하는 환자들의 심미적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금속도재관을 이용하고 고정체-지대주 계면을 치은연 하방에 위치시키는 경향이 증가되었다.

본 증례는 69세 남자로 상하 무치악 환자이며, Br nemak 임플란트 고정체를 상악은 6개, 하악은 7개를 식립하였다. 임플란트지지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기 전에 먼저 임시 보철물을 제작하고 연결하였다.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해, 상악 전치부에서 불리한 고정체의 위치, 각도와 연조직의 두께를 고려하여 1mm와 2mm의 EsthetiCone과 17°와 30° angulated abutment를 선택 연결하고 필요한 부위에 지대주를 조정하였다. 하악은 1mm와 2mm의 EsthetiCone abutment를 선택 고정하여 심미성과 기능성을 회복하였다. 이 증례를 통해 상하 무치악 환자에게 고정성 보철물로 기능, 심미 발음 등 임상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보고하는 바이다.